전법 일기

진공과 묘유의 문

〈眞空〉 〈妙有〉

2022년 늦가을 문경 봉암사 선방으로 향했다. 살면서 문경은 처음이었고, 봉암사도 첫 계절이었다. 범어사에서 포교국장직 사표를 내고 걸망 진 채 금정산을 하산하는 발걸음은 가벼웠는데, 희양산을 다시 올라가는 발걸음은 조금씩 무거워졌다. 출가한 지 겨우 10년이 넘었는데, 갓 머리 깎고 회색 옷을 입었던 그때의 초발심 행자는 거울에 없었다. 모르는 새 스님이 직업이 돼 버린 나는 재출가한다는 마음으로 희양산 봉암사 태고선원의 문을 두드려야 했다.

많은 대중 스님들 사이에서 다시 초심자가 되고, 막내가 돼 첫 수선안거가 시작됐다. 뻐근한 허리는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지고, 하루 열 시간 정진은 금세 흘러갔다. 몸은 큰방 안에 머물러 있었으나 번뇌와 상념은 우주를 떠돌았다. 방선 시간에 마당에 나와 진공문과 묘유문 사이를 돌며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고민의 파편들이 도시에 있었을 때보다 더욱 선명하게 검은 허공에 박혀 빛나고 있었다.

열 번의 수선안거를 선방에서 지내겠다고 결심했으니, 앞으로의 수행 성과는 첫 안거에서 얼마나 큰 보폭으로 나아가는가에 달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좌복 위에 앉을 때나 쉬는 시간 산행을 갈 때, 공양하러 선열당으로 향할 때, 화두 정진하며 집중이 흐려지면 호흡을 관찰하고 감정과 생각을 늘 살피며 깨어 있으려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살이 점점 빠져 갔다. 날카로운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식사량을 더 줄였다. 거울 속 얼굴이 점점 내가 알던 얼굴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 와중의 일이다. 눈이 소복하게 쌓인 어느 날, 힘없는 발걸음으로 공양하러 선열당으로 가기 위해 늘 지나가는 진공문을 지나는 길이었다. 처소에서 선열당으로 공양하러 가는 스님들은 모두 진공문을 지나 걸어가고 있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공양하러 가는 스님들은 왜 다 진공문을 지나가는 걸까. 처소에서 선열당 가는 길은 한 가지 길뿐인가. 처소를 나와 희양산 정상에 올랐다가 내려와서 선열당에 가면 그 길은 틀린 길인가. 진공문을 나와 선열당으로 가는 길은 몇 가지인가. 무한하다. 그리고 없다. 없어서 무(無)가 아니고 고정불변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공(空)이다.

봉암사에 처음 온 불자님이 "스님, 선열당 가는 길이 어딥니까?"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진공문 지나서 내려가다 왼쪽 길로 쭉 가십시오"라고 말할 것이다. "무수히 많은 길이 있어 어디 길이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다수의 스님들이 진공문을 지나 선열당을 가는 것과 공양하러 갈 때는 진공문으로 다들 나가지만 예불하러 큰법당 갈 때는 법당에서 가까운 묘유문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알았다. '진리는 공[眞空]하나 묘한 쓰임새는 있다[妙有]'는 말이 이 뜻이로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수행은 내 안의 그릇을 비우거나, 비어 있는 그릇을 알아차리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수행의 깊이를 무엇으로 잴 것인가. 온화한 태도, 배려하는 말씨, 남을 위해 나의 불편을 감수하는 마음의 여유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무수한 진리가 무슨 소용이랴.



눌은 스님 전 범어사 포교국장



송마나의 **시절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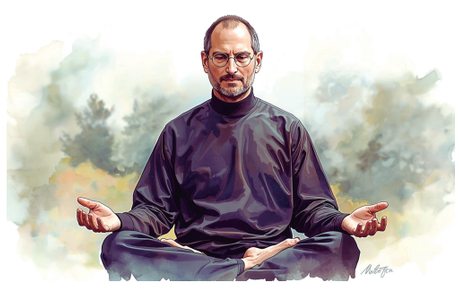
선의 사과

〈禪〉

아침에 일어나 냉장고에서 사과를 꺼내 한 입 베어 문다. 아삭하는 소리에 뜨거운 열기가 저만큼 물러서는 듯하다. 차갑고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번진다. 소백산 자락에서 자란 사과는 유난히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다. 사과 값이 올라 마음대로 사 먹지 못한 차에 지인이 보내 준 사과 한 상자를 아껴 먹고 있다.

사과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상상력과 운명을 흔들어 온 과일이다. 성경에서 하느님은 에덴동산의 모든 과일은 먹어도 좋으나 사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 이브는 금기를 어기고 사과를 따먹은 후 아담에게 건넸다. 아담은 그 사과를 삼키다 목에 걸려 목울대가 불거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아담스 애플'이라 불렀다. 남성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면 목울대가 도드라지고 유년의 맑은 목소리는 거칠게 변성된다. 성경 속 사과는 금단의 상징이다. 그렇다면 '아담스 애플'은 신이 내린 형벌일까, 아니면 금지를 어긴 자에게 남겨진 후회의 표식일까.

아이작 뉴턴(1643~1727)은 정원을 거닐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누구나 당연히 여기는 평범한 현상 앞에서 그는 질문했다. "왜 사과는 언제나 땅으로 떨어지는가?" 이 물음에서 출발해 뉴턴은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듯 사과 역시 지구를 같은 힘으로 끌어당긴다는 만유인력을 밝혀냈다. 뉴턴의 사과는 진정한 깨달음이란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숨어 있음을 일깨워 준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설립한 기업 '애플'의 로고 역시 사과를 형상화했다. 어린 시절 사과 농장에서 일한 경험에서 착안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러나 왜 온전한 사과가 아니라 굳이 한 입 베어 문 사과였을까.

잡스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입양아로 자랐다. 어디에도 뿌리내리지 못한 그는 방랑의 길을 걸었다. 대학을 중퇴하고 인도로 떠나 히말라야 기슭을 거닐며 명상에 잠겼고, 선불교의 사유에 깊이 매료되었다.

한 입 베어 문 사과는 더 이상 온전한 사과가 아니다. 그것은 상처 난 흔적이자 순간의 자취다. 모든 만물은 생겨나고 변화하며 사라진다. 세상은 무상(無常)하며 붙잡아 둘 실체는 없다. 사과의 상처는 덧없음을 드러내는 자취일 것이다.

또한 알고 싶고, 이루고 싶고, 남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이 한 입 베어 문 사과 안에 응축돼 있는지도 모른다. 사과를 베어 문 인간의 작은 입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브의 입이 낙원을 뒤흔들었듯, 인간의 욕망은 끝없이 세계를 흔들며 새로운 길을 열어 간다.

잡스가 만든 스마트한 디지털 기계는 인간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세상의 거리를 지우고 시간의 경계를 허물어 사람과 사람을 한 호흡으로 이어 준다. 우리는 손바닥 안의 작은 스마트폰을 욕망한다. 하지만 잡스는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었다. 그는 인도에서 깨달은 영적 통찰을 애플 로고에 불어넣었다.

"다른 사람의 소리가 여러분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마음과 직관의 소리를 따를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입 베어 문 '선(禪)의 사과'는 묵묵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작가〉

기자칼럼

실천으로 빛 발하는 '백중'

백중은 부처님 당시 목련 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부처님께 법을 청하고 대중에게 공양을 올린 데서 비롯됐다. 이 일화는 부처님 법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가장 수승한 공덕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백중은 오늘날까지 부모와 조상을 기리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보편적 가르침으로 전해진다. 죽음을 넘어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힘, 그것이 백중의 근본 정신이다.

올해 통도사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도량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백중을 회향했다. 통도사에서는 종정 성파 대종사가 "아는 데 머무르지 말고 실천으로 회향하라"고 법문했고, 범어사는 90일 정진을 이어가며 쌀 4000kg을 이웃과 나눴다.

홍법사 등 여러 사찰도 릴레이 법문과 기도를 이어가며 부모의 은혜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사찰마다 모습은 달랐지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였다. 백중이 의례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불자들의 기도가 생활 속 자비와 나눔으로 변할 때, 백중의 공덕은 비로소 빛을 발한다.

회향의 중심은 경전 독송과 법문 청취다. 독송은 부모와 조상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는 수행이고, 법문은 그 은혜를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지를 알려준다. 부모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것은 살아 있는 부모를 살피고 가족을 존중하며, 더 나아가 사회와 이웃에게 자비를 나누겠다는 서원이다. 이러한 서원을 가슴 깊이 새긴다면 효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된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제시하는 '현대적' 효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부모를 돌보며, 공동체와 사회에까지 공덕을 회향하는 것. 백중 회향은 끝이 아니라 효와 자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는 출발점이다.

기도와 법문이 멈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이 새로운 회향의 무대가 된다. 작은 인사와 돌봄, 나눔의 실천이 곧 부모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요, 불교적 효의 완성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